ISSUE BRIEF

이슈브리프 419호
(2023. 2.13)

2.8.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제419호

김보미 한반도전략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북한이 2월 8일 저녁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13번째 개최되었으며 김정은은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였으나 연설은 하지 않았다. 열병식에는 북한이 주력하여 개발하고 있는 전략무기와 전술무기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전례 없이 많은 수의 ICBM들이 등장하였고 지난해 9월 처음 언론에 거론되었던 전술핵 운용부대가 이번 열병식에 최초로 참여하였다. 비록 김정은의 연설은 생략되었으나 북한은 이 열병식을 통해 핵무기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북한, 열병식, 김정은, ICBM, 전술핵 운용부대

북한이 2월 8일 밤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해외 상업위성에 의해 징후가 포착된 대로 북한은 초대형 ICBM을 비롯하여 KN-23, 초대형 방사포, 순항미사일 등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전략·전술무기들을 대거 공개하였다. 집권 이후 거의 모든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었다. 다만 대내외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예상과 달리 그의 연설은 생략되었다. 비록 김정은의 메시지 발신은 없었지만 본 고는 이번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

5회 연속 야간 열병식 개최

이번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13번째 열병식이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개최된 열병식에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해왔다. 북한은 이번 행사까지 5회 연속으로 야간에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2018년 9월 9일에 개최된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까지는 오전에 개최되었으나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한 열병식부터 북한은 줄곧 야간에 열병식을 개최하고 있다. 야간 열병식의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불꽃놀이와 조명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 연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이 인민군 창건을 기념하는 정주년인 만큼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은 농후하였다. 북한이 2월 8일 건군절에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2018년 2월 8일에도 인민군 창건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이 개최된 바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이 바로 전 해인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건군절 85주년을 기념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을 창건하고 이날을 건군절로 기념해왔으나 1978년부터 2017년까지는 항일유격대 창설일인 4월 25일을 건군절로 지정하여 기념해왔다. 이후 2018년 1월 23일,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정규군 창설일을 2월 8일로 복원하였다. 대신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은 202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국가 명절이자 공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였다.

대규모 전략·전술무기 공개

이번 열병식에도 대규모 전략·전술무기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열병식 후반부에 북한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체계들을 선보였는데 완전히 새로운 무기체계보다는 KN-23,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화성-17형 등 기존에 시험발사 과정을 거친 무기들이 주축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세계 최대 ICBM 화성-17형은 10기 이상 등장하였는데 지금까지 열병식에서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화성-17형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 열병식과 지난해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때에도 등장한 바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무기는 열병식 마지막 쯤에 등장한 새로운 무기체계였다. 18륜 TEL에 탑재된 신무기는 고체연료를 탑재한 화성-17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나 아직 제원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만일 북한이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고체연료 ICBM을 공개한 것이라면, 향후 기술적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열병식에서 공개된 모습에서 다소 변형된 형태로 무기시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열병식에서는 남한을 타겟으로 한 전술핵 운용부대가 처음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전술핵 운용부대는 김정은이 지난해 2022년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여 수

차례 무력도발을 벌이면서 훈련을 지휘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열병식 내용을 보도한 2월 9일자 노동신문은 북한의 전술핵운용부대가 “강위력한 전쟁억제력, 반격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였다. 아직 관련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만 전술핵운용부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확장됨에 따라 신설된 여러 조직들 중 일부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에서 “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고 “중요군사조직편제개편”을 논의하였다고 밝혔으며 이후 전술핵운용부대의 존재가 공개되었다. 앞서 2월 6일 김정은 위원장 주재하에 개최된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4차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라고 적힌 깃발이 공개되어 미사일 전력을 담당하는 부서 또한 신설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김정은의 암묵적 대미·대남메시지

김정은은 집권 이후 참석했던 열병식에서 5차례 연설하였으나 이번에는 연설을 생략하였다. 김정은 외의 군부 인사가 한 보고 또한 공개되지 않아 직접적인 대미·대남 메시지는 없었다. 도발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김정은이 연설을 생략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8기 6차 전원회의 이후로 김정은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8기 6차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북미관계 원칙과 대남·대적투쟁 방향을 명시하였으며 2월 6일 개최된 당중앙군사위 8기 4차 회의를 통해 인민군에게 전투훈련 강화와 전쟁준비태세 완비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대남·대미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대적 메시지를 연달아 발송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례 없이 많은 ICBM을 공개한 점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국가임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주애의 다섯 번째 등장

이번 열병식에는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가 최초로 참석하였다. 리설주의 경우 2018년 2월 건군 70주년 열병식, 2022년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등 여러 차례 참석한 바 있다. 김주애는 2월 7일 김정은이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이하여 인민군 장령(장성) 숙소를 방문할 때에도 동행하였다. 바로 이튿날에 개최된 열병식까지 김주애는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두 군 관련 행사라는 점이 흥미롭다. 김주애가 북한의 미래세대를 상징하는 메타포라면 그녀의 군 관련 행사 등장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주애는 열병식 내내 자유롭게 행동하였는데 통상 후계자에게 요구되는 절제된 자세나 태도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항간에서 제기되는 후계자설은 아직 단정하기에 섣부른 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무력시위 예상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통상 한 해에 한두 차례 열병식을 개최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올해 열병식은 더이상 개최되지 않거나 한 차례 정도 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한 차례 더 열병식을 개최한다면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이나 9월 9일 정권수립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열릴 가능성이 있다.

열병식과는 별개로, 북한의 다음 무력시위는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의 전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3년차인 만큼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이유로 성과 도출을 위한 다수의 무기시험을 실행하

기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다. 특히 미중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진영화가 심화되는 국제정세는 추가 대북제재의 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고체엔진 ICBM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의 감행까지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 2월 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 등에 대해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북한이 최우선 5대과업에 제시된 사업들을 위주로 무기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시험발사나 최근 공개한 600mm 초대형방사포 시험을 집중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북한이 “또 다른 ICBM 체계”로서 고체엔진을 탑재한 ICBM을 시험발사한다면 미국의 대규모 전략자산 전개나 위기고조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에 실행에 옮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이번 열병식에서 김정은의 대외 메시지는 없었으나 북한은 각종 전략·전술무기들을 대거 과시함으로써 한미의 군사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지 않도록 평시 위기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미는 예정된 연합훈련을 통해 유사시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맞춤형억제전략의 개정을 진행하여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능력을 제한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외교적 관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